|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I 제3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I 제3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④	2	18	④	2	35	②	2	35	③	2
2	①	2	19	⑤	2	36	③	3	36	④	2
3	⑤	3	20	⑤	2	37	⑤	2	37	①	2
4	④	2	21	①	3	38	②	2	38	②	3
5	①	2	22	②	2	39	②	2	39	④	2
6	③	2	23	⑤	2	40	③	2	40	②	2
7	②	2	24	③	2	41	①	2	41	③	3
8	④	3	25	③	3	42	③	3	42	⑤	2
9	④	2	26	①	2	43	④	2	43	②	2
10	③	2	27	④	2	44	①	2	44	⑤	2
11	①	2	28	②	3	45	②	2	45	③	2
12	②	2	29	④	2						
13	③	3	30	②	2						
14	①	2	31	①	2						
15	⑤	2	32	⑤	2						
16	⑤	3	33	③	2						
17	①	2	34	④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Ⅰ 제3차 예비평가 해설

***** 바로잡습니다.**
파이널I 제1차 예비평가 해설지 정답표에 있는 **'화법과 작문'** 39번, 40번의 정답을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39번의 정답은 ③, 40번의 정답은 ⑤**입니다. 초기에 인쇄된 해설지 가운데 정답이 잘못 표기된 것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과정에서 엄밀히 검토하지 못해 수험생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독서와 관련된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치양지는 양지를 온전히 다스리며 실현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자연스러운 지각 능력이자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능력은 치양지가 아니라 양지이다.
[오답풀이]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독서의 목적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진다. ② 주희는 독서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았고, 성현의 도리를 알기 위한 목적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독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③ 양명은 독서의 목적이 내용의 암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을 계발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야 독서를 통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⑤ 양명의 관점하에 독서의 중요성을 정리한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독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2. [출제의도] 특정 입장에서 특정 독서법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양명은 주희의 독서법과 관련하여 그로 인해 문구 풀이에만 머무는 한계가 나타나므로, 이치를 밝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양명은 양지를 다스려 독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시하므로, 양명의 입장에 따르면 양지를 다스리지 못한 채 성현의 도리를 글자 풀이로만 대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반응을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주희는 성현의 도리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즉 이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③ 주희가 독서 행위 자체에 근본적인 목적을 둔 것도 아니며, 양명이 문구 풀이를 중시한 것도 아니다. ④ 글을 읽는 행위를 이차적인 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문구만을 암기하는 풍토가 나타났다. 양명은 문구 암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⑤ 양명의 입장에서 문구 풀이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보기>의 관점에서 지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적정 분량을 읽되 정밀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래야 독서에서 깨달음을 얻기 쉽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도록 적정한 읽기 분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A]를 보완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많은 분량을 읽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보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적정 분량을 정밀하게 읽어야 근심이 없어진다는 관점이므로, 근심을 없애기 위해 즐겁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③ 치양지의 상태에서 독서를 하면 깨우친 뜻이 마음속에 담긴다.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보완하기 위해 수양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문구를 암기하라는 것은 [A]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다.

[4 ~ 9] 인문-사회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32쪽

4. [출제의도] 두 지문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 처분을 하는 조치를 도입할 때에 드러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혐오 표현의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혐오 표현의 규제와 관련한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② (나)는 혐오 표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학자의 이론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③ (가)는 혐오 표현의 규제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절충하여 새 이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혐오 표현 규제의 도입이 미뤄지는 배경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나)는 혐오 표현의 규제 필요성과 관련한 유럽 인권 재판소나 우리 헌법 재판소의 입장을 다루고 있을 뿐 그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5. [출제의도] 두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악의 원칙에 따르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때 사회가 개인을 규제할 수 있다. 즉 반드시 규제해야만 한다는 원칙은 아니다. 또한 밀은 이 원칙을 설명하면서 공리주의의 원칙을 더했는데, 이는 규제로 인해 얻는 복리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면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드워킨은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존엄성을 형성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③ 월드론은 국가가 어떤 규범을 명시적으로 전광판에 드러내는 것이 전체주의의 산물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④ (나)의 첫째 문단을 보면, 유럽 인권 재판소와 우리 헌법 재판소가 혐오 표현에 대해 해악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혐오 표현 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어느 수위의 표현까지 처벌할 것인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 [출제의도] 특정 주장에 대해 특정 입장에서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주장은 소수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를 막는 일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월드론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것이다. 월드론은 소수자의 자유에 방점을 두기보다 소수자의 피해를 더 우선시한다. 소수자를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은 소수자 보호가 주된 목적일 것이므로 그 정당성 역시 소수자 보호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가)의 셋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월드론은 차별과 폭력의 출발점은 소수자에 대한 증오이고, 이를 막으려면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혐오 표현을 방치하면 소수자에 대한 증오가 더 확산되어 차별과 폭력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월드론의 입장으로 보아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어도 혐오 표현을 그대로 두면 차별과 폭력이 만연할 수 있으므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월드론은 혐오 표현을 방치할 때에 늘어나는 혐오 표현들이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차별과 폭력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② ㉠은 혐오 표현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상황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 또한 월드론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보장될 수 있음을 지적할 이유도 없다. ④ ㉠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소수자를 벗어나도록 하여 소수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간과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에 포함되어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정의의 원칙들을 받아들임을 알고 있는 사회이다. 다수가 이를 인정하며 따르고 있는 사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소수자의 존엄성도 안전하다는 암묵적 확신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의 사회 구조와 법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③ 혐오 표현은 암묵적 확신을 주지 못하는 요인이므로 혐오 표현이 만연한 곳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 ④ 소수자들의 입장에서도 존엄성이 보호될 것이라는 암묵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다. 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임을 알고 있는 사회이다.

8. [출제의도] <보기>의 조치들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는 개인에 대한 증오 선동의 혐오 표현에 한해서 형사 처분을 하는 조치이다. 임박한 위험을 유발하여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므로 형사 처분이 가능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해악이 나타난다면 그 규제에 동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동의할 것이다. ㉯는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 등 기존의 형사 처분 대상에서 혐오 표현이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개입하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조치이다. 그것이 직접적인 표현의 자유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도 동의할 여지가 있는 조치이다. ㉰는 공공 영역에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이는 일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풀이] 드워킨은 공적 영역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표현을 규제하면 권력이 승인하는 표현만을 보호하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드워킨은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오답풀이] ① 증오 선동의 표현에 대해 형사 처분을 하는 것은 해악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② 혐오 표현 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에 따르면 ㉯와 같은 조치들은 오히려 '암호화된 혐오 표현'을 양산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명시적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들의 존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명시적 확신'은 법률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혐오 표현에 반대하는 명시적인 선언 따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③ 특정 개인이나, 구성원이 특정된 집단처럼 이미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의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만큼, 이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대상은 명확하다. ⑤ 공적 영역에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치는 월드론이 찬성할 것이다.

9. [출제의도] 문맥상 바꿔 쓰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진술이므로, 이를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가능하다고 바꿔 쓸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도 해악의 원칙을 수용한다. ③ 권력이 승인하는 표현만을 보호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러한 표현만 허용되는 상황을 뜻한다.

[10 ~ 13] 과학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22쪽

10.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목성과 목성족 혜성 사이에 나타나는 궤도 공명은 목성족 혜성의 공전 주기가 목성의 중력에 의해 때론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효과가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태양계에 처음 진입하여 목성의 영향을 받는 혜성 중에는 목성의 중력 효과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아 목성과의 궤도 공명이 관찰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혜성의 꼬리는 코마의 일부가 길게 드리워진 것이므로, 코마와 동일한 성분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② 삼체문제는 세 천체 간의 중력 상호 작용을 계산하는 문제로, 일반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삼체문제 중 제한된 삼체문제의 경우에는 특수해가 존재한다. 목성의 라그랑주 점들이 그 예이다. ④ 목성의 라그랑주 점은 모두 다섯 개이고, 이 중 L1과 L2만이 퍼지 경계 이론에서의 퍼지 경계의 영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라그랑주 점들이 모두 퍼지 경계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⑤ 공명 호핑은 목성족 혜성이 L1을 지나는 공전 궤도와 L2를 지나는 공전 궤도 중 하나에 있다가 그중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공명 호핑을 통해 라그랑주 점을 지나지 않는 공전 궤도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11.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목성족 혜성의 공전 궤도에는 여러 라그랑주 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L1이나 L2 중 하나만이 포함될 뿐이다.

[오답풀이] ② 다른 혜성들과 마찬가지로 목성족 혜성 역시 태양계의 외곽에서 유래한다. 다만 이는 다른 혜성들과 달리, 태양과 목성의 중력에 포획되어 목성과 궤도 공명을 나타내며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③ 퍼지 경계 이론에 의하면 목성족 혜성은 하나의 공전 궤도상에서 공전하다가 퍼지 경계의 영역에 도달하면 공명 호핑을 통해 또 다른 공전 궤도로 이동한다. ④ 목성족 혜성은 태양과 목성의 중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그 궤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목성족 혜성, 태양, 그리고 목성의 중력 상호 작용, 즉 삼체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⑤ 목성족 혜성은 태양과 목성이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비교적 짧은 공전 주기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12.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개념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목성과 목성족 혜성 사이의 궤도 공명은 목성이 목성족 혜성에 미치는 중력의 효과가 누적될 때 나타난다. 이때 목성족 혜성은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성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오답풀이] ① 공전 주기는 천체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③ 궤도 공명이 일단 발생하면 이 궤도 공명은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궤도 공명의 상태에서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④ 목성의 중력에 의해 목성족 혜성이 끌어당겨지는 효과가 누적될 때 궤도 공명이 나타난다. 이때 목성족 혜성은 공전 속도가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과정을 거치므로, 태양 주위를 한 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공전 주기가 변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목성족 혜성이 L1을 지나는 공전 궤도에 있을 때 공전 주기의 비가 'm : n'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L2를 지나는 공전 궤도에 있을 때 공전 주기의 비는 'n : m'임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중심별인 A와 그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B, 그리고 A와 B의 중력에 영향을 받으면서 A 주위를 공전하는 혜성 C로 이루어진 가상의 항성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때 C는 B의 L1과 L2 중 하나에 위치한다. 따라서 지문에 근거하여 C가 각각의 점에 위치할 때 몇 번 공전한 뒤 원래의 라그랑주 점으로 돌아와 공명 호핑을 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C가 두 번 공전한 뒤 공명 호핑을 하였다는 사실로부터 B와 C의 공전 주기의 비가 2 : 1임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시점 T에 C는 L1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명 호핑을 하여 이동한 새 공전 궤도는 L2를 지나는 공전 궤도가 된다. 이때 B와 C의 공전 주기의 비는 1 : 2이므로, B가 두 번 공전하는 동안 C는 한 번 공전한다.

[오답풀이] ① C가 한 번 공전한 뒤 공명 호핑을 하였다면, 시점 T에 C가 위치한 라그랑주 점은 L2였을 것이고, 따라서 공명 호핑을 하여 이동한 새 공전 궤도는 L1을 지날 것이다. 이때 B와 C의 공전 주기의 비는 2 : 1이 된다. ② C가 한 번 공전한 뒤 원래의 라그랑주 점으로 돌아왔다면 그 라그랑주 점은 L2이다. 그런데 L2에서는 B의 중력이 아니라 A와 B의 중력의 합이 C의 원심력과 균형을 이룬다. ④ C가 두 번 공전한 뒤 원래의 라그랑주 점으로 돌아왔다면 그 라그랑주 점은 L1이고, 따라서 시점 T에 C는 L1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L1에서는 A와 B의 중력이 C에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C에 미치는 A와 B의 중력이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은 반대여서 상쇄된다. ⑤ C가 두 번 공전한 뒤 원래의 라그랑주 점으로 돌아왔다면 그 라그랑주 점은 L1이다. 그런데 L1은 A와 B 사이에 위치하는 점이므로, L1과 A 사이의 거리는 B와 A 사이의 거리보다 가깝다.

[14 ~ 17] 예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84쪽

1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태토에 칼로 문양을 정교하게 새긴 후에 백토와 자토로 이를 메우는 기법은 고려청자의 상감 기법이다. 분청사기는 상감 기법을 계승하였으므로, 분청사기에는 이 상감 기법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국가 주도로 운영되던 관요에서는 실용성이 중시된 도기가 아니라 국가적 요구나 규정된 형식에 얽매인 도기가 제작되었다. ③ 분청사기에서 형체를 만드는 밑감이 되는 흙은 하얀 흙인 백토가 아니라 회색 흙인 태토이다. ④ 풍류를 즐기는 정서나 불교적 이상은 분청사기가 아니라 고려청자에 반영된 것이다. ⑤ 분청사기는 백토가 아닌 태토로 형체를 만든 도기이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여러 기법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귀얄 기법)은 백토를 칠하여 문양을 냈으므로 흰색 선으로 이루어진 문양에서 생동감이 느껴지지만, ㉡(조화 기법)은 백토 바탕 위에 뾰족한 도구로 선을 새겨 드러나는 회색 선의 문양에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오답풀이] ① ㉠(박지 기법)은 문양을 그린 뒤 문양을 제외한 배경의 백토를 긁어내는 기법이지만, ㉡에서는 뾰족한 도구로 새긴 부분이 곧 문양에 해당하며 그 나머지 부분을 긁어내지 않는다. ② ㉢에서는 귀얄로 백토를 직접 칠하여 문양을 그려 내지만 ㉠에서는 백토로 분장한 후에 그 위에 문양을 그려 내고 문양의 배경이 되는 백토를 긁어낸다. ③ ㉢은 귀얄이라는 솔로 단번에 칠하는 기법이므로 도공의 빠른 손놀림과 속도감이 드러나게 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에서는 뾰족한 도구로 일일이 문양을 새기는 작업을 하므로 도공의 빠른 손놀림이나 속도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을 통해서는 꽃 등 구체적 형상을 재현하는 문양이 그려진 반면, ㉡과 ㉢을 통해서는 구체적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형상을 재현하기보다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문양이나 자유로운 선의 흐름이 추구되었다.

16. [출제의도] <보기>를 활용해 지문의 대상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공예품과는 다른 차원을 지닌, 회화의 예술성에 대한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술에 의존하여 '차가운 사물'로 만들어진 공예품과 달리, 감정과 내면을 표출하는 예술 양식인 회화는 현대에 들어 직감을 통한 즉흥성에 의해 구현되기도 한다. 특히 모더니즘 정신을 반영한 예술은 즉흥성과 우연성이 강조되는데, 액션 페인팅 기법으로 구현된 선이 지닌 우연성은 조각이나 공예와는 다른 회화의 고유성인 평면성을 부각시킨다.

[정답풀이] 일정하지 않은 두께의 선들로 남은 귀얄 문양은 도기의 표면에 즉흥성을 담은 것으로서 단순히 도기의 표면을 장식하는 요소가 아니라 회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이는 공예품이 지닌 '차가운 사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즉흥성과 우연성이 강조되는 회화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조화 기법과 액션 페인팅은 공통적으로 즉흥성과 우연성이 강조되는 선의 예술을 구현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구체적 형상의 재현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표현된 선은 대상이나 그와 관련한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에서 벗어나게 된다. ② 조화 기법에서는 구체적인 형상을 재현하지 않으므로 3차원적 환영에서 벗어나게 하며 즉흥적인 미감이 강조된다. 이렇게 3차원적 환영에서 벗어남으로써 회화의 고유성인 평면성은 강조된다. ③ 귀얄 기법이 '무기교의 기교'라는 칭송을 받는 것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기교를 부린 공예품과 달리 즉흥성과 우연성이 주는 미감을 강조한 덕분이다. 이는 이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성과 우연성을 바탕으로 '직감'을 표현하는 회화의 예술적 속성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귀얄 기법의 미감 역시 도공의 '직감'에 의해 내면이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④ 귀얄 기법에서는 한두 번의 솔질로 도공의 속도감이 생생하게 남게 되는데, 이는 우연한 행위의 잔상을 남기는 액션 페인팅의 효과와 흡사하다.

17.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칭송을 받는다'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의 의미이므로, 이는 '그는 집에서 막내로 귀염을 받으며 지내 왔다.'의 '받다'와 그 의미가 가장 가깝다.

[18 ~ 2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수능완성 175쪽)**

1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옥의 갓을 쓰고 자신이 공자('선옥')와 흡사한지 낭자('이 씨')에게 물어보았고, 이를 낭자가 꾸짖었다는 옥란의 말을 통해서 옥란이 선옥의 흉내를 내다가 꾸중을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옥란은 낭자가 공자의 도복을 지으면서 수품과 길이 장단이 맞는지 시험하고자 옥란 자신에게 입히고 두루 보았다고 말했다. 즉 옥란은 이 씨가 짓고 있는 옷을 이 씨가 입어 보라고 해서 입은 것이지 이 씨의 허락 없이 입은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이 씨가 '공자('선옥')의 도복'을 지은 것은 선옥이 '부친의 명'으로 '의관을 내려보'낸 후이다. 선옥이 '의관이 없'어서 '밤마다 집에 왕래하'지 못하는 동안 이 씨는 선옥의 옷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공자의 도복'을 짓다가 옷의 '수품과 길이 장단이 맞는가 시험코자' 옥란에게 옷을 입혀 보았다는 내용에서도 이 씨가 선옥이 집에 오지 않는 동안 옷을 새로 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선옥이 집에 자주 다녀갔더라면 옥란이 아니라 선옥에게 그 옷을 입혀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9. [출제의도] 지문 특정 부분들의 서술상 특징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 묘사된 풍경은 '황국'의 '향취 진동하고' '단풍'의 '광채 영롱하'다고 하는 등 '호탕'한 모습으로, 그것을 보는 선옥으로 하여금 '옹졸한 선비와 같이 서책만 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며 선옥의 들뜬 기분과 결부되고 있다. 반면 [B]에 묘사된 풍경은 '기러기'가 '짝을 잃고 울고 가'고 '천지는 적막하고 찬바람 소슬하'다고 하는 등 '창망'한 모습으로, '사람의 심장을 스러지게' 만들며 선옥의 쓸쓸한 심사와 결부되고 있다.

[오답풀이] ④ [B]에서 서술자는 '기러기'의 울음소리를 '슬픈 소리'라고 표현하고, '창망한 정경이 사람의 심장을 스러지게' 한다는 등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암시하고 있으므로, 관찰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 [출제의도] 특정 소재가 갖는 서사적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집을 나갔다가 육 년 뒤 돌아온 선옥은 집을 나가기 전 이 씨의 부정을 의심했던 것이 자신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후회막급'의 심경이 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지혜 없음'과 아내를 '의심하던 일' 등을 후회하는 것이지, 육 년 전 자신이 아버지의 명에 따랐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처사는 아들의 '의관을 내려다가 집에 두'면 아들이 몰래 집에 다녀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처사는 의관을 통해 아들의 행동을 제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③ 처사가 아들의 '의관'을 받아다가 '낭자의 처소', 즉 며느리 '이 씨'에게 보낸 것은 며느리에게 아들이 당분간 집에 오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④ 처사가 이 씨에게 선옥의 '의관'을 전달한 일은 옥란이 선옥의 갓을 '장난으로 내려서 쓰'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만약 처사가 이 씨에게 선옥의 '의관'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선옥의 갓이 벽에 걸려 있지 않았을 것이고 옥란이 이를 쓰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마침 아내를 찾은 선옥이 자신의 갓을 쓴 옥란의 그림자를 보고 다른 남자로 착각하여 집을 나갔으므로, 처사가 이 씨에게 '의관'을 보낸 일은 결과적으로 선옥이 육 년간 종적을 감추는 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옥은 '부친의 명'으로 '의관을 내려보'낸 뒤에도 공부에 전념할 다짐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집에 갈 수 없어 '울울'해하다가 '하릴없는지라(할 수 없어서)' 글을 읽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밤 호탕한 경치를 대하고 '낭자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을 두고, 공부에 전념하려던 선옥의 다짐이 번복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집안의 명성'을 생각하며 이 씨를 죽일 마음을 품었다가, '집안이 요란'해지고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며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바뀌는 등, 고뇌하는 주인공의 내면이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④ 자신이 먼저 죽겠다고 '강변에 방황하'던 선옥이 '일개 여자로 인하여' 자신의 '천명을 그르'칠 수 없다고 생각을 바꾸는 데에서 주인공의 내면이 다시 한번 번복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2 ~ 25]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윤선도, 「오우가」(수능완성 178쪽)**

➔ **김득연, 「지수정가」**

22.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제4수> 초장은 따뜻한 계절이 오면 꽃이 피고 추운 계절이 오면 잎이 진다는 진술을 담고 있고, <제4수> 중장은 눈서리 오는 계절에도 소나무는 푸름을 잃지 않는다는 진술을 담고 있으며, <제5수> 종장은 대나무가 사계절 내내 푸르다는 진술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가)의 <제4수>와 <제5수>는 시간과 결부된 진술을 활용하여 중심 소재에 대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첫머리에서부터 각 6행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과 그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결부된 진술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가)의 <제2수>는 초장과 중장에서 각각 '구름 빛'과 '바람 소리'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이 지닌 속성에 대한 견해일 뿐, 이를 상반된 세계관(=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의 <제4수>는 '솔'을 '꽃'이나 '잎'과 대비하고 있으나, 이는 대상들의 상반된 속성을 제시하는 것일 뿐, 상반된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각 대상의 속성이 표상하는 바를 생각한다 해도, 이는 상이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상반된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나)에도 상반된 세계관을 대조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문 중반부의 '동문'이 화자가 은거하고 있는 지수정 주변의 자연과 그 바깥의 세속을 나누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진술이 상반된 세계관을 대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3.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는 '맑은 서리'가 나뭇잎을 물들여 단풍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맑은 서리'는 '물들이'는 행위의 주체로 진술되어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는 자연물을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행위의 주체로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절을 그러한 행위의 주체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C]에는 겨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행위의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참고로 선지 ⑤의 설명에 적합한 시구의 예는, 정훈의 「용추유영가」에 나오는 '겨울이 조화 부려 백설을 내리니/수많은 산봉우리 경요굴이 되었거늘' 정도를 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② [B]는 단풍에 물든 가을 산이라는 자연물을 수놓은 비단이라는 인공물에 빗대고 있다. ③ [C]의 '원근 언덕 골짜기'가 '백옥경 경요굴'이 되었다는 시구는, '눈'과 '백옥'의 공통된 색채 심상(흰색)을 바탕으로 '언덕 골짜기'를 '백옥경 경요굴'에 빗댄 것으로, 현실 세계가 아닌 듯한 아름다운 설경의 환상적인 느낌을 부각하고 있다. ④ [A]는 '나무도 아닌 것이'와 '풀도 아닌 것이'를 병치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B]는 '기러기 한 소리'가 환기하는 청각적 심상과 '맑은 서리', '산색', '금수' 등이 환기하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가을철의 정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작품 속 공간의 성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여름날에 정자('지수정')에서 낮잠을 자다가 깨어 정자 아래의 '함벽당'을 굽어보며 그곳의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고기들을 구경하고 있다. 그러므로 '함벽당'은 화자에게 심미적 완상의 대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심미적 완상이란 아름다움을 살펴 찾으려는 태도로 즐겨 구경한다는 뜻이다.). 한편 (나)의 화자는 '무고암'에서성이면서 '소나무'와 자신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높은 기개'와 '후조 맹세'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므로, '무고암'은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동풍(=봄철에 불어오는 바람.)'이 '동방에 들어오'자 '창밖의 찬 매화'가 봄소식을 먼저 알아서 꽃을 피웠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동방'은 화자에게 늦은 봄이 아니라 이른 봄의 감흥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곡구암 반타암이 그림이 되어 동문을 잠갔'다고 했는데, 이는 멀리 그림처럼 보이는 '곡구암 반타암'이 마치 세속에서 화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서 화자가 세속과의 단절감을 느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화자가 '곡구암 반타암'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지문에는 화자가 '곡구암 반타암'에 올라갔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⑤ 화자는 '무고암'에서 '소나무'와 자신을 '우리'라고 칭하며 대상과의 동질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무고암'에서 고독감을 느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건곤이 화창'할 때에 '꽃과 버들'이 '쟁영'한다는 시구는 봄을 맞아 온갖 꽃이 피고 버드나무의 잎이 푸르게 물들어 제각각 아름다움을 뽐낸다는 뜻이므로, 이 '꽃과 버들'은 (가)의 '꽃'이나 '잎'과 달리 도덕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의미(지조 없는 삶의 태도 등)를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화자가 '꽃과 버들'의 '쟁영'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봄철의 끝없는 '미친 흥'을 느낀다고 한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꽃과 버들'이 표상적 기호가 아니라 특정 시·공간 내에 존재하는 자연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도덕적 판단과 결부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가)의 화자는 '솔'의 변함없음이 표상하는 지조라는 도덕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삶의 태도를 표상하는 기호로서 '꽃'과 '잎'을 활용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늘 깨끗하지만은 않은 '구름빛'이나 그칠 때가 많은 '바람 소리'와 달리 '물'은 '깨끗고도 그칠 새 없'다는 말을 통해 그러한 '물'과 같은 내면을 가지려 하는 자신의 도덕적 지향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달리 (나)에서 '함벽당'의 맑은 물에 '노는 고기'에 대한 진술은, 화자가 감각적 경험을 통해 느끼는 '여름날'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26～31] 현대소설－희곡 통합

➔ **연계 지문 : 최인호, 「타인의 방」 | 이강백, 「영월행 일기」 (수능완성 146쪽, 201쪽)**

26.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그'는 문득 자신의 집을 낯설게 느끼기도 하고, '역시 집이란 즐겁고 아늑한 곳이군'이라고도 하는 등 집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김시향'은 지문 앞부분에서는 자신이 위치한 공간을 '조당전'의 방으로 받아들이다가, 지문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차 그곳을 영월로 가는 길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특정 공간에 대한 인물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는 '그'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그'와 이웃의 사내 간의 대립이 잠시 제시되지만 이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고 할 수는 없다.

27.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집에 들어와 형광등을 켠 '그'는, '잠시 동안 낯선 곳에 들어선 사람처럼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그 뒤 피로감과 분노, 무력감에 휩싸였던 '그'는, 욕실에서 그러한 기분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한결 유쾌해'지는 것을 느끼며 '역시 집이란 즐겁고 아늑한 곳이군'이라고 혼잣말을 하지만, '그는 순간 그 소리를 타인의 소리처럼 느'낀다.

[오답풀이] ③ '그'는 이미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⑤ '그'는 기분이 조금 나아진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고 있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수상한 이라 의심하는 이웃을 어처구니없게 여겼을 뿐이다. 그 역시 이웃을 의심한 것은 아니므로, 이 대목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그'는 피로감에 젖어 집에 돌아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집이 아파트의 한 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상황은 아파트로 표상되는 도시적 삶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감을 환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앞부분의 줄거리'에 제시된 바, '그'가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웃이 '그'를 수상한 사람이라 의심한 사건은 '그'가 평소에 이웃과 교류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혼자 있는 집에서 부르는 '그'의 노랫소리가 '빠져나갈 구멍' 없이 '방 안'에 가득 차서 울리고 있는 상황은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가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도시인의 폐쇄적인 삶의 모습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작품은 아파트의 한 가구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타인의 방'이라는 제목을 통해 그 공간을 '집'이 아닌 '방'으로 표현하였다. <보기>를 참고하면, '방'이라는 표현은 전통적 삶의 방식을 표상하는 전통적인 '집'과는 다른 아파트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파트가 표상하는 도시적 삶의 방식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29.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조당전'의 말이지만, 극중 현실 속 인물인 '조당전' 본인이 바라는 바가 아닌 책 속 인물인 신숙주의 하인이 바랐던 바에 대한 말이다.

[오답풀이] ③, ⑤ '김시향'이 '조당전'에게 '난 옛날 글자는 못 읽어요.'라고 말한 점이나 '조당전'이 '김시향'에게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점을 통해, '김시향'이 『영월행 일기』를 읽어 본 적이 없으며 그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 상대방이 책 속 인물처럼 파멸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거나, ㉤에 책의 내용에 충실하게 인물의 성격을 재현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그'는 ⓐ를 통해 아내의 습관을 떠올리고 그것을 씹으며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나)에서 '조당전'과 '김시향'은 ⓑ의 내용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영월로 가는 길에 오른 가상의 부부 행세를 한다. 따라서 ⓐ는 인물의 심리 상태가 호전되는 계기로, ⓑ는 인물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가 '그'에게 아내를 환기하는 것은 맞지만, ⓑ가 인물들에게 서로를 낯설게 여기는 감정을 촉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문의 후반부를 보면, 오히려 ⓑ는 인물들에게 친밀감을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그런데 여긴 어디일까?'라는 '조당전'의 대사는, 당나귀를 타고 영월로 가는 길의 어디쯤에 자신들이 멈춰 서 있는지를 묻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인물이 과거의 시·공간을 호출하는 극중극에 빠져든 상황에서 던지는 질문인 것이다. 질문에 대해 '우린 맴을 돌았어요.'라고 '김시향'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이 답하자 '아니야. 굉장히 멀리 온 거야.'라고 '조당전'이 말하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와 과거의 시·공간 사이에서 인물이 느끼는 혼란을 보여 주는 대사라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여긴 어디일까?'라는 '조당전'의 질문에 대해, '김시향'은 '우린 맴을 돌았어요. 방 안을 빙빙 돌다가 제자리에 멈춘 거예요.'라고 답한다. 이는 '김시향'이 자신이 위치한 공간을 영월로 가는 길이 아닌 '조당전'의 방 안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김시향'이 '조당전'과는 달리 극중극에 빠져들지 않았음을 알게 한다. ③ '조당전'이 자신에게 계속 반말을 하자 '김시향'은 '선생님은 저를 당나귀에 태웠던 때부터 반말을 하시는군요.'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조당전'은 『영월행 일기』 속 두 인물이 부부 행세를 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조당전'의 '반말'이, 『영월행 일기』 속 신숙주의 하인이 한명회의 여종에게 한 말투를 재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반말'은, 막이나 무대 장치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극중극 현실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뒤섞어 제시하는 이 극의 특성을 보여 주는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김시향'은 '조당전'을 '선생님'이라 부르다가 '당신'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와 같은 호칭의 변화는 극중극을 받아들이는 '김시향'의 태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 한편 <보기>의 정보를 참고하면 '김시향'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작가가 의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곧 작가는 관객에게 극중극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인위적으로 강요하기보다, 극중극에 점차 몰입하게 되는 인물의 심리를 관객들이 따라감으로써 그들 역시 인물처럼 자연스레 극중극에 몰입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32 ~ 34] 현대시

➔ **연계 지문 : 정진규, 「추억 –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 (수능완성 197쪽)**

➔ **유치환, 「저녁놀」**

3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화자를 시의 표면에 드러내지 않은 채,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가난한 농촌의 장면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나)는 '우리'라는 일인칭(복수형)의 화자를 시의 표면에 드러내며, 화자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회고하는 목소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가)는 '떴다', '있어' 등의 시어의 반복을 통해, (나)는 과거형 어미의 반복을 통해,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지만, 두 작품 모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지는 않았다. ④ (가)의 '저녁놀'은 하루 중 해질녘의 시간을 환기할 뿐 계절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33. [출제의도] 유기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시어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하늘의 선물'은 '소리 없는 백성'이 아닌 '저녁놀'을 빗댄 표현이다. 아름다운 저녁 하늘의 풍경을 통해, 이와 대비되는 지상에 있는 마을의 가난을 부각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리 없는 백성'은 '백성'의 무저항적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축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현실을 묵묵히 인내하는 삶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② '연기도 안 오르고'는 아궁이에 불을 때지 못한 상황, 즉 저녁거리가 없어 저녁을 짓지 못한 상황을 환기하고, '풀어져 그대로 밤자리에 들고'는 밥을 먹지 못해 힘없이 잠자리에 든 상황을 환기한다. 이 두 구절을 병치함으로써 두 상황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은 단정적인 표현이지만, 그 내용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화자의 가족이 '고된 노동과 가난에 시달'렸다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삽질을 잘하'도록 '타고'났다는 표현에는 고된 노동과 비참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화자의 자조적이고 체념적인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 극복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② (가)의 '원', '사또', '대감'은 백성들을 수탈하던 구시대의 벼슬아치들을 환기하는 표현이다. 이들이 여전히 '거들어져 있'다는 진술은, 시대가 바뀐 것 같아도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는 여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당대의 권력층이 빈곤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⑤ (가)의 '저녁놀'은 대비를 통해 가난의 고통을 도드라지게 하는 소재이고, (나)의 '감자'는 가난의 고통을 담은 회화에서 차용한 소재이다. 두 작품은 이들을 시의 제재로 활용함으로써, 가난의 고통을 보다 함축적으로 전달하며 정서적 울림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13쪽**

35. [출제의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연설자는 2016년과 2020년의 일회용 포장 용기 생산량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일회용 포장 용기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환경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③ 연설자는 연설의 전반에서 경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④ 연설자는 도입부에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해 왔을 때, ~ 놀랐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지요?'라고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과 관련된 경험을 환기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일회용 포장 용기는 ~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라고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일회용 포장 용기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여 제기한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된 포스터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는 일회용 포장 용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힘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회용 포장 용기의 소재를 잘 썩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37. [출제의도] 연설의 특정 부분의 발화 의도에 따라 친구들을 설득할 말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는 ㉠에서 '음식을 포장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환경을 위해 조금만 용기를 내 보'라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는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용기 내 챌린지'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⑤가 적절하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87쪽**

38. [출제의도] 회의의 발화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1'이 방송을 놓친 친구들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점심 방송으로 변경된 축제 방식에 대해 안내했을 때의 단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점심 방송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39. [출제의도] 회의의 특정 맥락에서의 발화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언제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들어 '네 의견대로 하자'라고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오답풀이] ①, ③ ㉠은 '학생 1'의 질문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그러나 자신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40. [출제의도] 회의 내용이 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참여 가능한 동아리별 행사의 개수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축제 시작 시각인 ~ 메타버스 플랫폼인 □□□에 회원 가입을 하고'라고 하여 축제 시작 시각 이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플랫폼을 알려 주고 있다. ② '화면상에서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거나 터치하여 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메타버스에서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④ '상태창에 담긴 쪽지를 ~ 상품이 증정됩니다.'라고 하여 쪽지에 적힌 상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⑤ '관현악 동아리의 연주로 ~ 밴드 동아리의 공연순으로'라고 상연되는 공연 영상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글의 끝부분을 적절하게 이어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메타버스 학교 축제에 ~ 이해가 되셨나요?'라고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축제 참여 방법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축제일에 ~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서로 다른 두 글의 작문 맥락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일기로서 변경된 축제 방식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나)와 달리 개인의 경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

[43～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33쪽

43. [출제의도] 설득하는 글의 표현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에는 작은 도서관이 폐관되거나 폐관 위기에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의 이유로 이용자 감소와 운영 부실이 제시되어 있고, 이 각각의 이유에 대한 해결 방안이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 제시되었다.

44. [출제의도] 글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 1]의 (가)는 우리 지역 주민들 중 작은 도서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고, [자료 3]은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방 자치 단체의 세부적인 지원 항목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 두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이용률이 감소하면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는 없다. [자료 1]의 (가)를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보고 이를 작은 도서관 이용률 감소로 확대 해석하더라도, 이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5. [출제의도] 초고를 수정하면서 반영한 조언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장소인 우리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정된 <보기>에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해결 방안이 실행되었을 때 기대되는 결과('이용자 감소와 ～ 문을 닫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②가 적절하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39] 언어

35. [출제의도] 국어의 표기법의 변천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60쪽

근대 국어 시기에도 중세 국어 시기와 마찬가지로 소리에 따른 표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계속되었다. '중세나 근대 국어에서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단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지문의 설명을 통해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훈민정음해례』에서는 'ᄇᆡᆺ곶'과 'ᄋᆞᆷ의갗'을 'ᄇᆡᆺ곳'과 'ᄋᆞᆷ의갓'으로 쓴다는 예를 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 종성 자리의 'ㅈ, ㅊ, ㅿ'은 모두 'ㅅ'으로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근대 국어 시기에는 'ㄷ'과 'ㅅ'의 소리가 변별되지 않아 'ㄷ'의 자리를 'ㅅ'이 표기상 대신하였다. ⑤ 현대 국어에서는 단어의 원래의 형태를 밝힘으로써 언중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6. [출제의도] 표기 방식에 해당하는 예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9쪽

'밧긔'와 '업슨'은 앞 음절의 종성 중 'ㄱ'과 'ㅅ'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갔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븕거'와 '도적글'은 종성의 'ㄱ'이 뒤 음절의 초성에도 거듭 나타났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오ᄂᆞᆯ은'과 '사ᄅᆞᆷ을'은 명사와 조사를 분리하여 적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37. [출제의도] 문장에서 생략될 수 있는 부사어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1쪽

'그의 눈길이 노인에게 향했다.'의 서술어 '향했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부사어가 빠질 경우, '그의 눈길이 향했다.'와 같이 그 의미가 불완전한 문장이 되므로 이는 ㉡의 예에 해당한다.

38. [출제의도] 용언에 쓰인 어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96쪽

'것이오'는 의존 명사 '것'에 서술격 조사 '이다'와 종결 어미 '-오'가 결합한 것이다. 선어말 어미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슬펐겠구나'는 어간 '슬프-'에 선어말 어미 '-었-'과 '-겠-', 종결 어미 '-구나'가 결합된 활용형이다. ③'해'는 어간 '하-'에 연결 어미 '-여'가 결합된 활용형이다. ④'일어나시려고'는 어간 '일어나-'에 선어말 어미 '-시-'와 연결 어미 '-려고'가 결합된 활용형이다. ⑤'돌아섰음'은 어간 '돌아서-'에 선어말 어미 '-었-'과 전성 어미 '-음'이 결합된 활용형이다.

39. [출제의도] 직시 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해당하는 예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4쪽

㉡의 '저기'와 ㉢의 '30분 뒤', ㉣의 '어제'는 모두 문맥이나 상황을 통해야지만 그 장소나 시간이 가리키는 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직시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의 '나날이'는 '매일매일'을 의미하므로 직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일요일마다'는 문맥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가리키므로 직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40～42] 매체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62쪽

4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매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 제시된 매체는 인터넷 신문으로, 화면 상단에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각과 최종 수정 시각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사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매체 수용자가 기사를 열람한 시각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있으므로 수용자들이 기사와 관련된 정보를 나누거나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기사에 제시된 정보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③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기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기사 하단에 저작권 관련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용 허락 없이 기사를 다른 곳에 옮겨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⑤ 기사 하단에서 광고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광고들은 기사와 관련이 없으며, 광고 이미지들을 통해 기사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1. [출제의도] <보기>를 활용하여 매체 자료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사에서는 캠핑장 이용자 수의 증가 추이를 보여 주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캠핑장에서의 안전사고 유형을 제시하기 위해 ◇◇캠핑장협회의 자료를 사용하고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다. 하지만 캠핑장에서 화기 사용 시의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③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반영된 생산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의 메모 중 ㉤을 보면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중 일산화 탄소 중독이 위험한 이유들을 문자 언어로 열거하여 제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제작한 인포그래픽에는 일산화 탄소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제시되어 있으나 일산화 탄소 중독이 위험한 이유들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 제작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43～45] 매체－언어 통합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83쪽

(가)는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와 교수라는 한정된 범위의 정보 제공자들이 수용자들에게 '셉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나)가 동일한 정보를 여러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나)는 종이 신문으로, 기자라는 특정 직업을 지닌 사람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셉테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예시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닌 (가)이다.

44. [출제의도] 라디오 방송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64쪽

㉤에서 보조사 '은'은 발화에서 제시된 대상인 '관심이 있으신 분'이 화제임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대상과 대조됨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45. [출제의도] 정보 전달 및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두 개의 매체 자료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64쪽

'자료'의 제목 아래에 제시된 전문인 '◇◇구 ☆☆동 벽화 조성 사업에 함께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에서는 공고문의 목적을 밝히고 있을 뿐 벽화 조성 사업의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다. 참고로 항목으로 정리된 내용 부분에서도 벽화 조성 사업의 목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